안녕하십니까? 미한국상공회의소(KOCHAM) 사무국입니다.

아래 경제 기사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미국 경제
- Bloomberg: 7월 미 기업 고용 4만4천개 증가에 그쳐
- WSJ: 미네아폴리스 연은 총채, “이제 점차 금리 올릴 때”
- YahooFinance: 캔자스시티 연은 총재 “인플레 잡기 위해 금리 인상 필요”

[미국 금융]
- CNBC: 미국채 금리 별다른 변동 없어…민간고용 지표 부진 등 주시

[중동전쟁]
- Bloomberg: 트럼프, “이번주 호르무즈 운항 재개 타격 될 듯”
- WSJ: 이란, 협상에서 ‘호르무즈 통제권 유지’ 고수
- Bloomberg: 후티 반군 “홍해 항해 사우디 선박 공격하겠다”

[오일]
- CNBC: 오일가 하락... 호르무주 협정 추진으로

[주택]
- Bloomberg: 미 모기지 6.81%로 상승…1년여 만에 최고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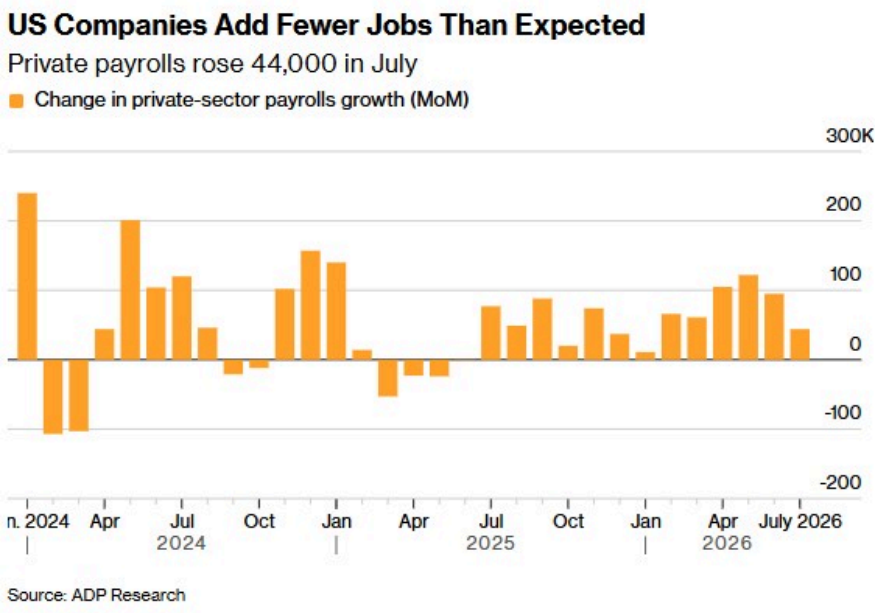
[비즈니스와 기업 동향]
- Bloomberg: 셰이크쉑, 매출 증가…고비용으로 순이익은 줄어

[오늘의 금융 지표]
- 미 증시 지수, 미국 국채 금리와 주요 환율

[미국 경제]

Bloomberg: US Companies Added 44,000 Jobs in July, ADP Data Show
7월 미 기업 고용 4만4천개 증가, ADP 발표

- 미국 기업의 7월 신규 고용 규모가 예상보다 적었는데 민간 부문 고용은 4만 4천건 증가에 그쳤다.
- 급여 및 노무 관련 기업인 ADP 보고서에 따르면 또한 이직자들의 임금 상승률은 가속화되어 약 1년 만에 가장 높은 수준을 기록했다.
- 이직한 근로자의 임금은 전년 대비 7% 증가한 반면, 기존 직장에 남은 근로자의 임금 상승률은 4.4% 수준에 머물렀다.



기사

WSJ: Fed's Kashkari: It's Time to 'Start Slowly Moving' Rates Higher
미네아폴리스 연은 총재, "이제 점차 금리 올릴 때"

- Neel Kashkari 미네아폴리스 연은 총재가 인플레를 연준의 2% 목표치로 낮추기 위해 기준금리를 천천히 올리기 시작할 시점이라고 밝혔다.
- 그는 급격한 금리 인상을 요구하는 것은 아니라면서도, 현재 통화정책이 긴축적이라는 증거가 없어 물가 안정을 위해 추가 조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 그는 댈러스 연은 총재, 클리블랜드 연은 총재와 함께 지난주 금리 인상을 주장하며 반대표를 던진 연준 위원 3명 중 한 명이다.
- 한편 연간 연방공개시장위원회 회의 횟수를 6회로 축소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수용적인 입장이라고 덧붙였다.

기사

YahooFinance: Kansas City Fed's Schmid favors higher rates to bring down inflation
캔자스시티 연은 총재 "인플레 잡기 위해 금리 인상 필요"

- Jeff Schmid 캔자스시티 연은 총재가 어제 화요일 높은 인플레이션을 잡기 위해 금리 인상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 그는 "강한 수요와 투자를 감안할 때 현재 통화정책은 경기 과열을 막기엔 턱없이 부족하다"며 연준의 2% 물가 목표 달성을 위해 더 강력한 긴축 정책(높은 금리)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 그는 6월 물가 지표의 둔화세는 긍정적이지만, 단 하나의 지표에 과도한 의미를 부여하는 것은 시기상조라고 덧붙였다.

기사

[미국 금융]

CNBC: Treasury yields are steady as Kashkari says time to raise rates, ADP jobs data is weak
미국채 금리 별다른 변동 없어…민간고용 지표 부진 등 주시

- 미국 국채 금리가 민간 고용지표(ADP) 부진과 향후 기준금리 전망을 주시하며 수요일 보합세를 보였다. 별다른 변동이 없는 상황이다.
- 대출 금리의 기준이 되는 10년물 국채 금리는 1 베이시스 포인트 오른 4.637%를 기록했다.
- 30년물 국채 금리는 1 베이시스 포인트 미만 하락한 5.185%를, 연준의 단기 금리 정책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2년물 국채 금리는 2베이시스 포인트 이상 오른 4.221%를 나타냈다.

SYMBOL	COMPANY	YIELD	CHANGE
US10Y	U.S. 10 Year Treasury	4.629%	+0.002
US1M	U.S. 1 Month Treasury	3.675%	-0.008
US1Y	U.S. 1 Year Treasury	4.048%	+0.005
US2Y	U.S. 2 Year Treasury	4.21%	+0.016
US30Y	U.S. 30 Year Treasury	5.179%	-0.01
US3M	U.S. 3 Month Treasury	3.828%	+0.005
US6M	U.S. 6 Month Treasury	3.963%	+0.003

기사

[중동 전쟁]

Bloomberg: Trump Fuels Hopes of Hormuz Opening With Hints Deal Is Close
트럼프, “이번주 호르무즈 운항 재개 타격 될 듯”

- 트럼프는 이르면 이번주 수요일 호르무즈 해협 운항 재개를 위한 협상이 타결될 수 있다고 밝혔다.
- 그는이란과의 협상이 순조롭게 진행 중이라며 48시간 내 윤곽이 나올 것이라고 말했다.
- 소식통에 따르면 미국, 이란, 오만은 60일간의 호르무즈 해협 통행 협정을 준비 중이며, 페르시아만(중동 유전 지대)으로 입항하는 선박은 이란 인근 수로를 이용하고 출항 선박은 오만 수역을 이용하는 방식이 논의되고 있다.

기사

WSJ: Iran Is Staking Everything on Controlling the Strait of Hormuz
이란, 협상에서 ‘호르무즈 통제권 유지’ 고수

- 이란 정부는 트럼프 대통령과의 대응에서 '호르무즈 해협 통제권 유지는 타협 불가'라는 배수의 진을 쳤다. 이란은 세계 원유 수송로인 호르무즈 해협을 통제해 미국 경제를 흔들 수 있다는 점을 보여 줌으로써 미국과 이스라엘의 군사 공격을 막는 지렛대로 삼으려는 의도로 보인다.

- 한편 이란과 오만은 선박의 안전 통행을 위한 임시 항해로 개설을 논의 중이다.
- 미 국무장관은 핵 협상을 재개하기에 앞서 호르무즈 해협을 전면 재개항하는 협상이 우선이라는 트럼프 대통령의 입장을 재확인했다.

기사

Bloomberg: Yemen's Houthis Say They'll Target Tankers in Northern Red Sea
후티 반군 "홍해 항해 사우디 선박 공격하겠다"

- 예멘 후티 반군이 홍해 북쪽의 사우디 유조선을 공격하겠다고 밝혀 해상 긴장이 격화하고 있다.
- 후티 반군 대변인은 사우디가 남부 바브엘만데브 해협을 피해 선박 항로를 우회했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 후티는 지난달 항구 봉쇄에 대한 보복으로 사우디 선박 공격을 예고한 바 있다.
- 이란과의 전쟁으로 호르무즈 해협이 봉쇄된 상황에서, 사우디가 원유 수출용으로 쓰는 홍해 지역의 사우디 핵심 원유 항구인 Yanbu 항구마저 위협받아 글로벌 에너지 시장의 위험이 더 커졌다.

기사

[오일]

CNBC: Oil prices fall on negotiations to manage ship traffic in Strait of Hormuz
오일가 하락... 호르무주 협정 추진으로

- 미·이란·오만이 호르무즈 해협의 선박 통항 협정을 추진 중이라는 보도에 수요일 유가가 하락했다.
- 브렌트유는 0.74% 내린 배럴당 78.77달러, 서부텍사스산원유(WTI)는 1% 내린 74.93달러를 기록했다.
- 3국은 입항 선박은 이란 수로, 출항 선박은 오만 수로를 이용하는 60일 임시 협정을 논의 중이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매체 인터뷰에서 "협상이 잘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기사

[주택]

Bloomberg: US Mortgage Rates Rise to 6.81%, Highest Level in a Year
미 모기지 6.81%로 상승…1년여 만에 최고치

- 미국 모기지 금리가 1년 만에 최고치로 치솟으며 침체된 주택 시장의 대출 수요를 더욱 압박하고 있다.
- 미국모기지은행협회(MBA)에 따르면 7월 31일로 끝난 주간의 30년 만기 고정 모기지 금리는 6.81%로 전주 대비 5 베이시스 포인트 상승했다.
- 이란 전쟁 직전인 2월 말 2022년 이후 최저치를 기록했던 금리는, 전쟁 여파로 에너지 가격이 뛰고 인플레 우려가 커지면서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다.

기사

[비즈니스와 기업 동향]

WSJ: Shake Shack Revenue Climbs, Profit Slips on Higher Costs
셰이크쉑, 매출 증가…고비용으로 순이익은 줄어

- 셰이크쉑은 2분기 매출이 증가했으나, 운영비용이 늘면서 순이익은 1,570만 달러로 줄었다고 발표했다.
- 셰이크쉑의 조정 주당순이익은 43센트로, 팩트셋이 조사한 전문가 예상치인 31센트를 웃돌았다.
- 셰이크쉑의 동일 매장 매출은 3.5% 증가해 전문가 예상치인 2.6%를 상회했다.

기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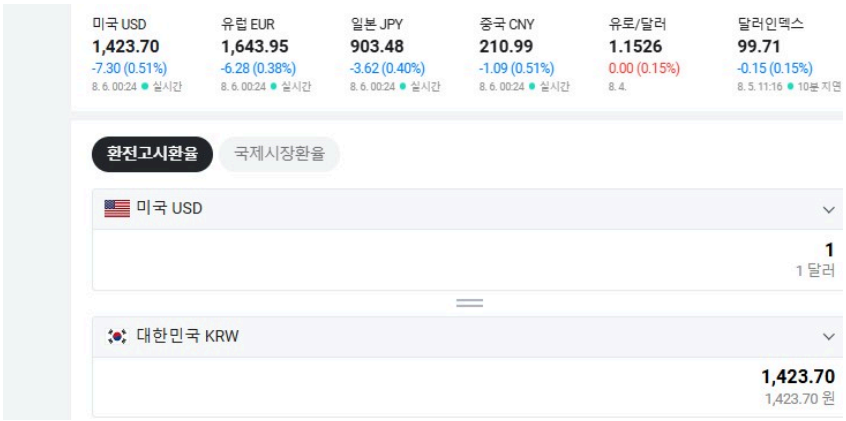
[오늘의 금융 지표: 미 증시 지수, 미 국채, 주요 환율]



US 30	53,986.60	+808.2	+1.52%
US 500	7,698.40	+97.9	+1.29%
Dow Jones	53,996.09	+817.68	+1.54%
S&P 500	7,698.66	+98.17	+1.29%
Nasdaq	26,394.27	+480.37	+1.85%
S&P 500 VIX	16.27	+0.41	+2.59%
Dollar Index	99.82	+0.039	+0.04%

U.S. Treasurys

	COUPON (%)	PRICE CHG	YIELD (%)	YIELD CHG
30-Year Bond	5	-1/32	5.180	0.005
10-Year Note	4.375	-23/32	4.633	0.014
7-Year Note	4.375	-1/32	4.483	0.016
5-Year Note	4.375	-1/32	4.349	0.016
3-Year Note	4.125	-1/32	4.267	0.030
2-Year Note	4.25	0/32	4.219	0.013
1-Year Bill	0	1/32	4.048	0.049
6-Month Bill	0	0/32	3.965	0.000
3-Month Bill	0	0/32	3.828	0.015
1-Month Bill	0	0/32	3.675	-0.010



KOCHAM | 445 Park Ave | New York, NY 10022 US

Unsubscribe | Constant Contact Data Notice